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l@hanyang.ac.kr

제19-001호(2019. 9. 3)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한양대학교 제19대 노동조합이 출범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과 위상을 지키고 나아가 대학의 한 축으로서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1988년 3월 29일 한양대학교 노동조합이 첫발을 내딛은 이후 30여년이 흘렀습니다.

31년 조합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조합원들께서 흘린 피와 땀의 역사입니다. 而立(이립), 《논어》〈위정편(爲政篇)〉에 공자가 말한 것으로 마음이 확고하게 서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조합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현재에 걸맞게 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여 위상을 확고히 세우고 우리 조합원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역대 노조는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학을 상대로 투쟁해왔습니다. 급여 및 수당 인상, 후생복지 수준 향상, 휴가 문화 개선, 직원 위상제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등을 요구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있습니다.

초창기 1980년대는 전사회적으로 노사의 관계는 대립의 시대였습니다. 현재는 상생, 호혜의 시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뜻을 확고하게 세우고 현안들을 차분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되 그 명목으로 조합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노사 상생, 호혜는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함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일련의 행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억누르려고 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음을 대학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존중’

제19대 노동조합이 첫 걸음을 내딛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기고 싶은 말입니다.

노동조합과 대학, 조합원과 노동조합, 노동자와 노동자 등 모든 주체와 구성원들은 나이, 지위, 직종, 학력, 출신과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면 갈등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치유하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여러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임기 마치는 그 날까지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2019. 9. 2.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제19대 위원장 신 남 호 올림